

네이버, 14.6조 AI 인프라… 세종 AI팩토리 200MW 확장

엔비디아·브룩필드와 공동 추진
차세대 GPU 약 10만개 규모 조성
브룩필드, 최대 90억달러 조달
엔비디아, 10억달러 전략투자 추진
장기적으로 1GW급 인프라 확장

네이버가엔비디아,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와 손잡고 총 100억달러(약 14조6300억원)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세종 데이터센터에 구축 중인 AI 팩토리 규모를 기존 55메가와트(MW)에서 200MW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가와트(GW)급 소버린 AI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네이버와 엔비디아, 브룩필드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한국의 소버린 AI 팩토리 인프라 확장 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월 공개한 세종 '각(GAK) 세종' 데이터센터의 55MW 규모 AI 팩토리 구축 계획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새롭게 구축되는 AI 팩토리는 약 200MW, 엔비디아 GPU 약 10만개 규모로 조성된다. 한국은 물론 미국 AI 기업까지 사



네이버 이혜진(왼쪽 세번째) 의장과 최수연(왼쪽 첫번째) 대표가 젠스 황 엔비디아 창립자 겸 CEO 등 관계자들과 24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엔비디아 본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용할 수 있는 멀티 테넌트 형태의 AI 컴퓨팅 인프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AI 서비스 개발을 넘어 AI 인프라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겠다는 네이버 전략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생성형 AI 경쟁이 모델 성능에서 컴퓨팅 인프라 확보 경쟁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네이버도 자체 AI 모델과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GPU 인프라를 모두 갖춘 'AI 팩토리' 사업자로 영역을 넓혀겠다는 전략이다.

투자 구조도 대형 프로젝트에 걸맞은 규모다. 브룩필드는 독점 자본 파트너로 참여해 최대 90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추진한다. 엔비디아는 네이버에 10억달러를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네이버는 나머지 자금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엔비디아의 투자는 관련 절차와 자금 조달 완료 등을 전제로 진행된다.

AI 팩토리는 세종 '각 세종' 데이터센터에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플랫폼인 '엔비디아 DSX'를 기반으로 구축된다. 엔비디아 '블랙웰'과 차세대 '베라루빈' 플랫폼을 도입해 차세대 AI 모델과 AI 에이전트, AI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AI 인프라를 장기적으로 1GW 규모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기업과 공공 기관은 물론 글로벌 AI 클라우드 고객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국가 단위 AI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혜진 네이버 의장은 "엔비디아의 전략적 투자와 브룩필드와의 인프라 공급 계약으로 AI 팩토리 사업에 대한 네이버의 비전이 강력한 실행 단계에 진입하게 됐다"며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소버린 AI 생태계 조성과 대한민국 AI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젠스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AI 공장은 국가가 AI 시대에 경쟁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네이버, 브룩필드와 함께 한국의 스타트업과 산업을 지원할 대규모 소버린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양사의 협력은 AI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는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의 오픈모델 '네모트론 3 울트라'를 기반으로 하이퍼클로바X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 최초로 '네모트론 연합'에 참여해 오픈모델 개발에도 협력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엔비디아 에이전트 툴킷을 기반으로 한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국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자체 스트리트뷰와 공간 모델링 데이터를 활용해 엔비디아 '코스모스' 기반의 '서울 월드 모델'도 개발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가 단순한 데이터센터 증설을 넘어 네이버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에서 AI 컴퓨팅 인프라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역할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AI 경쟁이 모델 개발에서 전력과 GPU, 데이터센터를 확보하는 'AI 팩토리 경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네이버도 엔비디아의 컴퓨팅 기술과 브룩필드의 자본을 기반으로 한국형 소버린 AI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SKT, AI 데이터센터 전담법인 'SK하이퍼' 에이전트 AI 확산, 토큰 부담 커져 LLM 경쟁도 효율성 중심 재편

2030년까지 자본금 7500억 출자
정석근 CTO 초대 대표로 선임
충청·호남권 15GW급 구축 추진

SK텔레콤이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사업에 속도를 낸다. 이달 최고경영자 직속 AIDC 통합추진단을 신설한데 이어 완전 자회사 SK하이퍼를 출범하면서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은 AI 인프라 구축을 전담하는 SK하이퍼를 설립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SK하이퍼의 전 지분을 보유한 SK텔레콤이 7500억원의 자본금을 2030년까지 출자하기로 했다.

SK하이퍼 수장으로는 정석근 SK텔레콤 최고기술책임자(CTO·사진)가 발탁됐다. 정 대표는 사내 AI 사업을 전담하는 AICIC 부문장을 겸임 중이다. 정석근 SK하이퍼 대표는 "SK하이퍼는 SK그룹의 아시아 AI 인프라 허브 청사진을 현실로 구체화하는 역할"이라고 했다. SK하이퍼



는 울산에 이어 충청·호남권에 15GW급 AI DC를 구축하는게 목표다.

SK텔레콤은 SK하이퍼를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SK그룹은 지난 6월 정부가 주도하는 AI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2035년까지 총 75조원을 투입해 15GW급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AI DC)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마존웹서비스(AWS), 엔트로픽,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해 아시아 내 AI 인프라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자회사 설립을 통해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동안 AI 사업은 사내 통합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해왔다. 지난해 출범한 'AICIC'는 AI 데이터센터와 대표 생성형 AI 서비스 '에이닷' 등 AI 사업 전반을 총괄

했다.

올해에는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별도로 육성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이어졌다. 이달에는 대표 직속으로 AI 데이터센터 전략을 전담하는 'AIDC 통합추진단'을 신설했고, 이번에는 전담 법인인 SK하이퍼를 출범시키며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독립적인 사업 체계로 전환했다.

SK하이퍼 설립에 따라 AI DC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초기 사업 수립부터 수익 창출 전략까지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해 경영진의 의사 결정 속도가 빨라져서다.

외부 투자 유치에 따른 자금 조달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AI 데이터센터 사업이 별도 법인으로 분리됨에 따라 해당 사업만을 두고 투자자들의 시장 평가가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 구축에 조 단위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현금 유동성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조민선 기자 msjo@

에이전트 AI 확산, 토큰 부담 커져 LLM 경쟁도 효율성 중심 재편

코딩 업무 토큰 최대 1000배 소비
기업, RAG·모델 조합으로 비용 절감

개인 and 기업의 AI(인공지능) 활용이 '에이전트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거대언어모델(LLM) 시장의 경쟁 기준도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는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드는 '성능 경쟁'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같은 업무를 얼마나 적은 토큰과 비용으로 수행하는지가 AI 상용화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에이전트 AI는 생성형 AI가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여러 단계의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AI 시스템이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자료를 검색하고, 파일을 읽고, 코드를 작성하거나 일정을 관리하는 등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델을 반복적으로 호출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토큰도 크게 늘어난다.

실제로 지난 4월 공개된 논문 'AI 에이전트는 당신의 돈을 어떻게 소비할까요? 에이전틱 코딩 업무에서의 토큰 소비 분석과 예측'에 따르면 에이전트 기반 코딩 작업은 일반적인 코드 생성이나 코드에 대한 질의응답을 수행하는 '코드 채팅'보다 최대 1000배 많은 토큰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작업에서도 모델별 토큰 소비량 차이가 크게 벌어졌으며 키미(Kimi)-K2와 클로드 소넷 4.5는 GP T-5보다 평균 150만 개 이상의 토큰을 추가로 사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토큰은 AI 모델이 문장과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다. 생성형 AI 서비스는 개인 구독형과 기업용 API 등 다양한 요금 체계를 제공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토큰 사용량과 추론 비용이 서비스 운영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개인 이용자는 일정 사용량을 초과하면 일시적으로 특정 모델 이용이 제한되고, 기업은 API 호출이 늘어날수록 토큰 비용이 직접 증가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에 '토큰절약'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콘텐츠 화면 캡처. /김보민 수습기자

다. 토큰 사용량 증가는 GPU(그래픽처리장치) 연산과 전력 소비 확대로 이어져 AI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개인 and 기업 모두 토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프롬프트 최적화나 핵심 정보를 파일로 기억하게 만드는 시스템 활용 등의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 기업들은 업무 난이도에 따라 서로 다른 모델을 조합하거나 지속형 메모리, 검색 증강생성(RAG) 등을 활용해 불필요한 토큰 소비를 줄이고 있다. AI 기업들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젠스파크는 지난 24일 사용자의 업무 맥락을 지속적으로 저장하는 'AI 워크스페이스 6.0'을 공개했고, 데이터브릭스는 24일 마이크로소프트와 기업 데이터를 AI의 비즈니스 맥락에 결합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학계 역시 이러한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김보민 수습기자 kbm@

삼표산업, '블루콘 스피드' 녹색기술 인증

타설 24시간 내 5MPa 강도 확보
충당 공사기간 최대 2일 단축

삼표그룹이 건설현장의 공기 단축과 안전성 향상을 이끄는 특수 콘크리트 기술로 친환경 인증을 획득했다.

삼표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현대건설과 공동 개발한 조강 콘크리트 '블루콘 스피드(BLUECON SPEED)'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받은 '블루콘 스피드'는 일평균기온 5℃ 이상 조건에서 건설현장 콘크리트 타설 후 24시간 이내에 압축강도 5MPa(메가파스칼, 1㎠당 약 10kg)의 하중

을 견디는 강도) 이상을 확보하는 고성능 특수 콘크리트다.

특히 최근에는 일 평균기온 0℃ 조건에서 타설 후 24시간 이내에 압축강도 5MPa 이상을 확보하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 제품은 간절기 아파트 골조 공사의 충당 시공 기간을 기존보다 최소 1~2일 단축해 현장의 생산성과 시공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앞서 블루콘 스피드는 콘크리트 강도 부족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위험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업계 최초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신기술'로 지정된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SK텔레콤 스타트업 AI 활용 지원

‘에이엑스 케이윈’ API 제공

SK텔레콤이 국내 스타트업에 자사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에이엑스 케이윈' 활용을 지원한다. SK텔레콤은 스타트업 3개사에 '에이엑스 케이윈' API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정부 주도의 스타트업 지원 사업 '2026년 모두의 챌린지 AX-LLM'의 일환이다. 국내 스타트업이 국산 AI 모델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협업 환경을 제공한다. 회사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모델을 스타트업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